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년, 아쉬움 속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며...

이상신 _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1. 시작하며

2015년 3월 27일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충남연구원 산하기구로 설치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개소하면서, '충남도가 서해안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전하고 있다.

중도일보

2015년 03월 30일 (월)
14면 지역

서해안 기후변화 대응체제 본격가동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개소
도 환경복지구현 앞장 기대

충남도는 27일 내포신도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신청사에서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김기영 의장, 대전기상청장, 도와 시·군·환경 담당 공무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은 경과보고와 현판식, 사무실 방문, 심포지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서 허 부지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지역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권원태 박사가 '선진국 기후



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신청사 개소식이 지난 27일 내포신도시 내 현지에서 열린 허승욱 정무부지사,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변화 정책 동향 및 대응'을,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박사가 '충청남도 기후변화 현황과 과제'를, 최진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가졌다.

최진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대

응 기반 조성, 연안·물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도민 환경 복지 구현 등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산하 기구로 설치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내포신도시 업무시설용지 2258㎡의 터에 지상 2층, 연면적 989㎡ 규모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교육운영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18.5 X 15.3 cm

[연구소개소 관련 언론보도_중도일보, 2015.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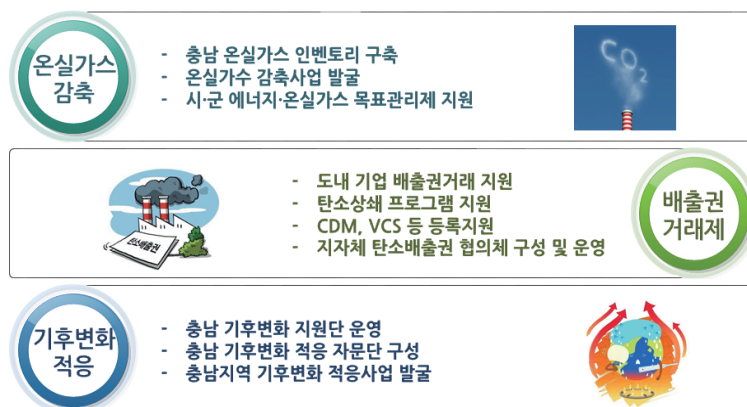
하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2016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본격가동을 위한 준비 중은 아닌지 하는 아쉬운 마음과 개소식 당시 충남도민의 바람인 충남지역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물어 보게 된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는 2개의 센터가 소속되어 있으며, 출범한지 10년을 바라보는 물환경연구센터와 달리 연구소 개소와 함께 출범한 우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업을 함께 안고 2015년을 보냈다. 설립당시 주어졌던 역할과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하고, 충남도 산하 여러 조직과 중복된 기능부분에 대한 조율에 지난 시간을 보냈다면, 2016년은 설립 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기능을 다시 찾아보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한해라 생각된다.

2.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역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내 센터들은 중간조직의 역할과 더불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센터로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과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 개발을 통해 충남도의 차별화된 중부권 기후변화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 역할을 통해 지역기반 기후변화·환경 DB 축적으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며, 지역으로부터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역할]

(1)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





(2)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생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룡산, 칠갑산 등 기후변화 생태모니터링- 충남 해안 기후·생태 모니터링- 주요하천 및 호수 생태변화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해안 평균수면 상승추이 장기 관측- 연안침식 및 해안선변화 등 해빈환경 변화 모니터링- 충남 연안역 기상 및 해양의 정기적인 관측자료 생산- 화력발전소 온배수 유출에 따른 인근해역의 환경생태변화 모니터링	연안해안 모니터링
산업시설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소 주변대기환경 변화 모니터링- 산업단지 주변 대기환경 변화 모니터링- 농·축산 단지 환경영향 모니터링	

(3)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지역 기후변화 교육- 충남 기후변화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기후변화 정책제안 활성화	
홍보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정보제공 기관간 협력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정보포털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시스템으로 확대운영	
교육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지역 기후변화 강사진 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교육교재 발간- 시·군별 기후변화 교육 지원	
네트 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부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후변화 정기포럼 개최- 지역 기후변화 정책공유- 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인력풀 구축	

3. 아쉬움의 2015년

지난 2015년 3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2명의 연구원으로 마치 광활한 대지에 위태롭게 홀로 서서 열정만 가진 이상주의자의 마음으로 출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연구원 내부를 비롯한 연구센터 외부현황 파악이 미진하여 혹독한 조율의 시기를 거쳤으며, 가을에는 구성원을 7명까지 늘이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년, 아쉬움 속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며...

연구센터의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렸다. 겨울을 맞아 설익은 과일을 수확하듯 연구결과물을 급하게 거둬들이고 다시 한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은 연구센터 출연금 교부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개월에 걸쳐 충청남도청내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실·과나 팀과 정기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20여건의 연구과제와 10여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10여건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 6월에는 연구원 본원의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7월에 출연금 목적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5년 이내에 달성할 연구센터의 5대 단기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 연구 기반확립

→ 연구소 기초연구자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

□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반조성

→ 충청남도 기후환경 영향 모니터링 추진

□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지원체계 확립

□ 기후변화 인식제고 향상

→ 충청남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사업추진

□ 충청남도 기후변화 정책 Think T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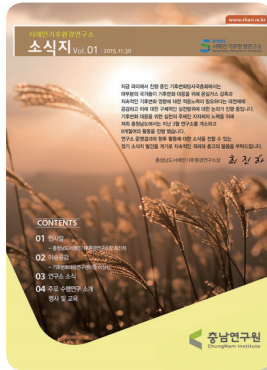
→ 지속적인 충청남도 기후변화·환경 정책지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단기목표]

연구기반 확립을 위해 충남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Prototype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대전지방기상청과 연구원간 MOU 체결을 추진하고, 충청남도 기후변화 100년 발간 및 다수의 관련 논문게제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반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기후변화 모니터링 계획 수립, 충청남도 연안환경 관리방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권 실무협의체 운영계획 수립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위한 연구를 통해 충청남도 1호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을 마쳤다. 기후변화 인식제고 향상을 위해 충남지역 기후변화 교육 운영방향 수립연구와 더불어 초등학교 기후변화 교육과 기후변화 공개강연회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기후변화 정책 Think Tank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현안과제를 지원하고 충남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충남기후정보브리핑을 창간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연구소 소식지를 창간하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활동과 관련 정보를 충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제공하였다.



[2015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활동]

2015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활동들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란 단어를 되새기고 싶다. 물적, 인적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세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한발 앞선 정책제안이 미흡했던 점, 둘째 연구원 본원과의 물리적 거리 등으로 원내 정보공유 부족, 마지막으로 센터 자체 발간물이나 보고서에 대한 연구질 관리가 아쉬웠다.

4. 2016년 새로운 도전

2016년은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따른 국제사회 기후변화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감축목표 설정과 국가에너지 신산업 육성계획 발표에 따른 국가적 현안에 대응해야할 시기이다. 또한, 충남도내에서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과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주변 기후변화 모니터링 원년으로 본격적인 기후변화(연안 포함)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된다. 이처럼 국제적인 현안과 국가사업 대응, 더불어 충남도의 관련 사업 지원이라는 본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15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한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리센터에서는 이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기반 기후변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동력확보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발전전략]



2016년에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5대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 기반확립] 연구소 기초연구자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

- + 기본과제 수행(기후-회복경로 적용 등)
- + 기후변화에 따른 충남 시군별 가뭄전망
- + 충남 연안역 기후변화 적응방안 연구
- + 충청권 기후변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유관기관 MOU 추진

[기후변화모니터링 기반조성] 충남지역 기후변화 관련 모니터링 추진

- +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 영향평가 연구 수행
- +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 + 충청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관련 계획 수립 지원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충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지원체계 확립

- + 시·군 공공부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평가 지원
- + 배출권거래제 등 충남 온실가스 감축 지원(탄소상쇄, 대응계획 수립 지원)
- + 충남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가이드라인 제작
- +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원

[기후변화 인식제고 향상] 충남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사업 추진

- + 충남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 충청남도 대학생 기후변화 적응 서포터즈 운영
- + 기후변화 홍보 행사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
- + 연구조성 사업(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수행
- + 연구소 소식지 정기 발행

[충남도 기후변화 정책 Think Tank] 지속적인 충남도 기후변화 정책지원

- + 충남 기후정보 브리핑 발행
- + 도정 현안과제 지속적인 지원

5. 마치며

2016년 기후변화분야는 기존 교토의정서체제와는 전혀 다른 신기후체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 완화로 대변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야만 살펴보더라도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할당 하던 방식에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스스로 결정하여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新 기후체제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감축, 적응, 재정 및 기술이전 등)
감축대상국가	37개 선진국 및 EU	195개국 선진·개도국 모두 포함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할당	상향식(bottom-up)각국 스스로 감축목표 결정 (INDC제출)
적용시기	1기 교토협약 기간: 2008~2012년 2기 교토협약 기간: 2013~2020년	2020년 이후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출하여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기후변화 완화분야에서는 지자체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출범하기 전 충남도에 있어 기후변화문제는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출범 이후에는 기후변화를 미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센터가 충남도의 희망을 준비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것이다. ◀